

[특집 대담]

## 주시경 선생님의 국어 사랑을 말하다

대담: 이기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진행: 송철의(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때: 2014년 8월 19일(화) 오전 10시

곳: 대한민국학술원 도서실

**송철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찾아뵙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뵈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주시경 선생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국어생활》 편집진에서 이런 대담의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고, 그 시기는 언제쯤부터인지요?

**이기문** 저는 일찍부터 주시경 선생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이나 글을 읽은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글을 자세히 읽은 것은 구한말(舊韓末)의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 자료를 검토하게 된 때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제가 쓴 《개화기의 국문 연구》(1970)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국문연구소의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문연구소의 회의록(會議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문연구소는 1907년 9월 16일에 첫 회 회의를 열었고 마지막 회의를 1908년 12월 27일에 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안 제기된 연구 문제들에 대한 각 위원의 연구안(研究案)입니다. 이것은 주시경 선생님이 차곡차곡 모아 둔 것으로, 지금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육당문고(六堂文庫)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문연구소가 1909년 그 사업을 마치면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국문연구 의정안》과 위원들의 연구안(研究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안은 각 위원들이 여러 회의에 제출했던 것을 각자 최종적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이 최종 보고서 문치는 일본 동경대학(東京大學)에 있는 오구라문고(小倉文庫)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갈 때마다 그곳 여러 도서관과 개인 장서에 있는 우리나라 옛 문헌들을 보아 왔습니다. 그중에서 제 가장 큰 관심은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교수가 서울에서 모은 책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1968년 엔가 제가 동경에 잠시 들렀을 때 그의 구장서(舊藏書)가 동경대학 중앙도서관에 있다는 말을 얻어듣고는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동경대학 언어학과의 핫도리 시로(服部四郎) 교수님을 뵈게 되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도서관장께 전화를 걸어서 제 소원은 달성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 보니 그 책들은 도서관 지하실 캄캄한 구석에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긴 전등줄 끝에 전등알을 쫓고 앞서 가는 도서관 직원의 뒤를 한참 따라가서 책 더미 앞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혼자 그 책들을 뒤적였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며칠이 걸려도 모자랄 것인데, 그럴 수 없어 두어 시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책 더미 속에서 국문연구소의 최종 보고서 문치를 찾아냈을 때에는 흥분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서류의 마이크로필름까지 얻었을 때에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국문연구소에 관한 책을 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의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하였는데 그중에서 주시경 선생님의 보고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성으로 일관했던 선생님의 학문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보고서는 다른 위원들의 보고서보다 분량도 많았지만 100여 장에 달하는 보고서(최종 연구안)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한 자 한 획도 흘려 쓴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선생님이 남기신 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송철의** 네, 그러셨군요. 오구라문고에 묻혀 있던 국문연구소의 최종 보고서를 발굴하시면서 그 속에서 주시경 선생님의 국문 연구안을 보시게 되었고, 그것이 선생님께서 주시경 선생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시경 선생님의 글들을 모으기 시작하셨군요.

선생님께서서는 그렇게 모으신 자료들을 1976년,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에 《주시경전집》(상, 하)으로 간행하였습니다. 이 전집의 간행은 국어학계로 하여금 주시경 선생님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집을 간행하신 동기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요?

**이기문** 주시경 선생님의 글들을 찾아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닌데도 20세기 초엽의 단행본이나 잡지를 구해 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글을 하나라도 더 읽어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언제부턴가 선생님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는 것이 우리 학계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간과 학문을 가장 잘 전해 주는 것은 그 자신이 쓴 글들일 것이므로 주시경 선생님을 넓고 깊게 이해하는 데 무

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일은 선생님 자신이 쓴 글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976년에 전집을 낼 때에 저로서 가장 마음이 쓰인 것은 책 끝에 ‘해설(解說)’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무척 망설였던 일이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책이 나온 뒤에 읽어 보고 고치고 싶은 데가 적지 않음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민수 선생이 편찬한 《주시경전서(周時經全書)》를 들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전 6권으로, 1992년에 탑출판사(塔出版社)에서 간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간행된 것 중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송철의** 선생님께서는 혹시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 중 어떤 분이나 주시경 선생님과 가까운 어떤 분에게 수학을 하시거나 그런 분과 교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로부터 주시경 선생님에 대하여 들으신 이야기는 없으신지요?

**이기문** 저는 평안북도 정주군의 오산중학교(五山中學校)를 다니다가 해방 뒤 월남하여 서울의 중앙중학교(中央中學校) 4학년에 편입하였습니다.<sup>1)</sup> 이 학교에 주왕산(周王山) 선생이 계셨는데 주시경 선생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손수 편찬하신 매우 수준이 높은 교재(教材)로 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편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조(時調)를 가르치시면서 시조 한 수씩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썼는지 잊었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 오셔서 제가 쓴 시조를 읽으시며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저는 주 선생을 더욱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국문과를 지망했을 때 기뻐하셨던 일이 지

---

1) 당시 중학교는 6년제였다.

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왕산 선생으로부터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송철의** 주시경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과 우리의 어문 현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활동하신 시대는 대략 개화기라고 일컬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 우리 어문의 현실은 대략 어떠한지요?

**이기문** 저로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개화기라고 하지만 옛 틀을 벗지 못한 혼란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선각자(先覺者)들이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앞장섰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로 우리 국어와 국문의 통일, 표준화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그것을 정리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우리말과 글의 연구에 앞장선 분이 주시경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 선생이 좋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송철의** 이 시기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 틀을 벗지 못한 혼란기였습니다만 선각자들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여 문명개화하여야 하며, 신분제를 폐지하여 만민 평등을 실현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각국과 교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이 필요했고,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을 위해서는 다시 통일된 국어와 국문이 필요했습니다.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은 언어와 문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시기 우

리의 국어와 국문은 통일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 표기법의 혼란이 문제였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표기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책마다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글이 아무리 배우기 쉬운 훌륭한 문자라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많은 선각자들이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문을 정비하는 일, 특히 표기법(맞춤법)을 통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시경 선생님은 우리의 문자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한 일에 앞장을 서셨던 것입니다. 문자 체계와 표기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했기에 주시경 선생님은 국어의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송철의** 그러면 다음에는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을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 하면 가장 큰 특징으로 독창성을 들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주시경 학문의 독창성에 대해서 여러 글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힌샘의 언어 및 문자 이론”(《어학연구》 17-2, 1981), “21세기와 국어학”(《국어국문학》 125, 1999) 등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을 국어학의 창조적 전통으로 손꼽으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의 독창성은 어떤 것이며 그러한 독창성은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기문** 주시경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서 제가 맨 먼저 읽은 것은 국문연구소에 제출하신 최종 연구안입니다. 이 글에서 선생님이 힘주어 밝히신 ‘본음(本音)’과 ‘임시의 음(臨時的 音)’에 관한 이론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 위에서 선생님은 새로운 한글 맞춤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니다. 이것이 그 뒤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에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맞춤법은 계승되었으면서도 ‘본음’, ‘임시의 음’의 이론은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들, 후계자들의 어느 글에서도 이 이론을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글에서 이 이론을 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이론이 잊히고 말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성음운론(生成音韻論)을 접한 것은 1960년대의 일입니다. 저는 1959년에 고려대학교 조교수에 임명되었고 그 이듬해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그 부속의 하버드-옌칭 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의 초빙학자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촘스키(N. Chomsky), 할레(M. Halle)의 새로운 언어학 이론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초기였고 몇 해 뒤에 이들에 의해서 전개된 기저형(基底形, underlying form)과 음성 표시(音聲表示, phonetic representation)의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시경 선생님의 ‘본음’과 ‘임시의 음’ 이론에 접했을 때, 이것이 바로 촘스키, 할레의 이론과 같음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50년이나 앞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이론이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계승·발전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학문을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주시경의 학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한국학보》 5, 1976), “한헌샘의 언어 및 문자 이론”(《어학연구》 17-2, 1981)을 쓴 것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글들을 쓰면서 선생님의 글들을 통독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의 학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독창적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어렵פות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과학’과 ‘수리학(수학)’의 개념이나 방법을 국어 국문 연구에 적용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배재학당, 이운학교(향해술), 흥화학교(측량술) 등에서 자연과학과 수학에 대한 소양을 길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한 자연과학과 수학의 소양을 국어 국문을 연구하는 데에 심분 활용했던 것입니다. 소리(말소리 포함)는 ‘공기의 파동’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든지 말소리 중에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홀소리를 ‘원소(元素)’라고 했든지 하는 것들은 자연과학의 개념을 가져온 것이고 ‘ㄱ’과 ‘ㅎ’이 합하면 ‘ㅋ’이 되므로 ‘ㅋ’은 ‘ㄱ’과 ‘ㅎ’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 등은 자연과학의 분석 방법을 방불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또 학술 용어, 즉 술어란 어떤 부호를 정하고 그것을 정의해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정의(定義)’를 무척 강조한 것은 역시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영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ㆍ’의 음가를 ‘丨’와 ‘ㄴ’의 합음이라고 보고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1증(第一證)’에서부터 ‘제6증’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수학에서의 증명 방법을 방불케 합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을 분석적이면서 체계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방법을 국어 국문 연구에 적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앞으로도 우리 학계가 선생님의 학문을 밝히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송철의** 일반적으로 주시경 선생님이 국어 국문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가 당면했던 어문 생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혼란된 표기법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국어 국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의 문자 체계를 새로이 정비하고 혁신적인 새 표기법을 정립하였습니다. 주시경 선생

님의 표기법은 전통적인 표기법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당시의 사람들로부터는 너무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은 결국 현대 한글 맞춤법으로 정착된 셈입니다(세부적으로는 상당한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표기법이 현대 한글 맞춤법으로 정착되게 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기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에 대하여 책을 쓴 일도 있는 송 선생이 말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철의** 주시경 선생님은 처음에는 문법에 맞는 표기법을 주장하셨습니다. 표기법의 혼란이 문법을 모르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법에 맞는 표기법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표기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머그로, 부스로 ; 머그면, 씨스면’과 같이 표기해 왔던 것을 ‘먹으로, 붓으로 ; 먹으면, 씻으면’과 같이 표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음운론에서 본음 이론을 정립하면서부터는 ‘문법에 맞는 표기법’을 발전시킨 ‘본음대로의 표기법’을 주장하였습니다. 본음대로의 표기법이란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음’ 이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을 흔히 ‘본음주의 표기법’이라 일컫기도 하였습니다.

	(1)	(2)	(3)
밥 :	바비, 바브로, 밥과	밥이, 밥으로, 밥과	밥이, 밥으로, 밥과
막 :	막고, 마그면, 마가	막고, 막으면, 막아	막고, 막으면, 막아
놓 :	노코, 노흐면, 노하	노코, 노흐면, 노하	놓고, 놓으면, 놓아
높 :	놉고, 노프면, 노파	놉고, 놉흐면, 놉하	놓고, 높으면, 높아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표기법은 위 표의 (1)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화기 무렵이 되면 표기법이 상당히 혼란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대체로 (2)와 같은 표기법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시경 선생님은 본음 이론을 바탕으로 (3)과 같은 표기법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주시경 선생님 표기법의 특징은 훈민정음 창제 이래 몇 백 년 동안 지켜 온 '8종성법(八終聲法)'을 버리고 모든 자음을 종성(받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1)이나 (2)와 같은 표기법을 채택하면 받침이 8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면 족합니다. 이를 '8종성법'이라 하는데, 이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정해진 표기법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시경 선생님은 한글 표기법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랜 전통을 깨고 문법에 맞는 표기법, 나아가서는 본음대로의 표기법, 즉 (3)과 같은 표기법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3)과 같은 표기법을 채택하게 되면 8종성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자음(ㅈ, ㅊ, ㅋ, ㅌ, ㅍ, ㅎ 등)을 받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이 생소하고 어렵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주시경 선생님 자신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표기법이 옳다는 것을 벗들에게 누누이 설명해 보았지만 흔쾌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조차 선생님의 표기법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문 연구, 어문 운동의 대가였던 지석영 선생님 같은 분도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에 대하여 학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어렵고 생소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도 주시경 선생님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표기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기법 이론을 정립하여 나아갔으며 제자들을 길러 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은 ‘한글마춤법통일안’에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표기법이 너무 어렵다든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너무 생소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이 ‘한글마춤법통일안’에 계승되어 현대 한글 맞춤법(표기법)으로 정착될 수 있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략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이 본음 이론이라는 탄탄한 이론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은 표음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표의적 기능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독서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표기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태소를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선 예들에서 (1)이나 (2)와 같은 표기법보다 (3)과 같은 표기법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기에 점차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철의** 주시경 선생님은 국어 연구 및 표기법 정립을 위한 학문적 활동뿐만 아니라 국어와 국문을 보급하기 위한 어문 운동도 헌신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어문 운동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이기문** 주시경 선생님은 혼자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데 만족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연구한 것을 널리 알리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주보파리’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학교에서 가르칠 때 쓸 교재(教材)를 보자기에 싸들고 동분서주

(東奔西走)하신 선생님의 모습이 이 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의 우리나라 학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선생님은 국어 국문의 올바른 교육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선생님은 강습소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선생님의 학문이 계승되었습니다. 김두봉, 최현배 같은 출중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주시경 선생님은 국어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국어사전 편찬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잘 편찬된 국어사전이 있어야 일반 대중이 그것을 참조하여 언어생활과 문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표기법을 통일하는 데에도 사전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1910년 한일 합병 직후에 설립된 조선광문회에서 몇몇 제자들과 《말모이》라는 사전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전은 원고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송철의** 지금까지 주시경 선생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한 계기, 《주시경전집》을 간행하신 동기와 의도, 주시경 선생님 학문의 독창성, 주시경 선생님의 어문 운동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주시경 선생님의 정신이나 학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문** 주시경 선생님의 생애는 매우 짧았습니다만, 국어 연구와 그 보급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자 생활, 언어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지성으로 일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바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주시경 선생님께 우리가 배우고 이어받아야 할 것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모든 일을 지성으로 일관했던 삶의 태도, 독창적으로 학문하는 정신, 우리말과 글에 대한 한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시경 선생님으로부터 이어받아야 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철의**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여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시경 선생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